

# 주민 주도형 복지서비스 확대

### 익산시 오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본격화 문화·교육·보건·의료 등 문화·복지 서비스 강화

익산시가 오산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 주도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배후마을을 성장시키는 거점지 △ 공동체 활성화 4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오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한 '농촌협약 사업'의 일환이다. 각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문화·교육·보건·의료 등 필수 서비스 공급 기능을 강화해 배후마을 주민들의 문화·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지역 자원과 연계해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주도형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사업의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탄탄한 주민 리더 △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여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탄탄한 주민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위원회 대상 워크숍과 마을 활동가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행복한 배후마을'을 조성하고자 한방교실·차매예방교실·활력교실을 운영하고, 마을 동아리 활동 및 마을 가꾸기 지원, 취약계층 및 인구가 감소하는 과소화마을 주민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장하는 거점지 구축을 위해서는 앞서 1단계 사업에서 조성된 늘찬문화복지센터 등 거점시설을 활용한다. 센터에서는 취약계층 문화교실과 건강교실, 방과 후 체험교실 및 축구교실 운영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익산시는 오산면을 시작으로 용안면, 웅포면, 왕궁면, 함라면, 용동면, 춘포면 등에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를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군산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관광국 3개 과 및 복지교육국 2개 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 군산시의회 행복위,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 문화관광국 3개과·복지교육국 2개과 대상 진행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지난 25일 군산시의회 제 272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관광국 3개과 및 복지교육국 2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체육진흥과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설경민 의원은 사업예산 삭감과 관련해 해당 단체에 사전 통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단체 스스로도 대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은 직장체육 종목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조정과 육상 종목을 인프라와 시민의 관심도를 고려해 종목 교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술의전당관리과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최창호 의원은 예술단이 시민을 위한 단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과 단체협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행부는 예술단

과의 상시적인 간담회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물관리과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김경식 의원은 근대역사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박물관을 대표하는 고유한 상징물(캐릭터)를 개발하여 방문객들이 이를 통해 군산시를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연희 의원은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추진 시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지원과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는 송미숙 위원장은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군산시와 민간 부문에서 이미 유사한 돌봄사업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

### 군산시, 지난해 목표액 166% 달성... 다자녀 가구 차량 무료 대여·새들 어린이 숲 놀이공원 조성 진행

군산시가 2024년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올해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이 목표액의 166%를 달성하면서 시는 기금 활용방안을 의논하기 위해 '2024년 고향사랑기부 기금운용 심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통해 시는 2025년 군산시 지정 기부 사업으로 다자녀 가구 차량 무료 대여 지원과 새들 어린이 숲 놀이공원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다자녀 가구 차량 무료 대여는 3자녀 이상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일

정 기간 차량을 무료로 대여하여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가정 내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는 가장 친화적 사업이다.

또 하나의 추진 사업인 '새들 어린이 숲 놀이공원 조성'은 어린이들이 자연과 함께 놀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놀이공원은 군산시의 중요한 자연 자원인 숲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며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시는 이 사업 역시 기부자들이 자신이 낸 금액이 지역사회의 미래 세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자부심

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 군산시는 더 나은 성과를 목표로 고향사랑기부금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기부 참여를 독려했던 다양한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군산시는 새로운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개발을 준비도 서두르고 있다.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을 두 차례 진행했으며, 2025년 4월 중으로 답례품 선정위원회도 개최된다. 군산시는 지역 특산품을 기반으로 기부자들에게 특별하고 의미 있는 답례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동물헬스케어 메카로 육성 박차

### 내년까지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센터' 구축 예정

익산시가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센터' 실시 설계를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를 준공한 데 이어, 내년까지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센터'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7월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를 준공하며 1단계 사업을 마무리했다. 평가센터는 동물용의약품 의료기기 시험기관으로 등록돼, 품목허가 시 제출되는 유효성·

안전성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어지는 2단계 사업으로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센터'를 2026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센터 건립에는 총사업비 300억 원이 투입되며,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2,814㎡이다.

센터가 완공되면 신약 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인 시료 생산과 제형 연구를 지원하게 돼,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베트남 계절근로자 작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익산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 인력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시는 농촌 지역 인력을 도울 베트남 계절근로자 207명이 오는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입국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에이전시와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선발했다. 지난 1월 진행된 화상 면접을 통해 건강 상태와 근로 의지, 농업 경력 등을 심사해 최종 111명을 선정했고, 지난해 재입국 추천자 96명을 포함해 총 207명을 선발했다.

올해는 인력 투입이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될 지난해와 달리, 입국 시기를 상반기 한 번으로 통합해 한 사람이 8개월 간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217명도 수시로 입국해 농촌 현장에 투입된다.

권혁 바이오농정국장은 "계속해서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관리해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아름다(多)움 웰니스 익산 여행' 운영

익산시가 봄의 정취를 만끽할 특별한 여행을 선보인다.

익산시는 (재)익산문화관광재단과 함께 '3월 여행기는 달'을 맞아 '아름다(多)움 웰니스 익산 여행'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아름다(多)움 웰니스 익산 여행'은 익산이 보유한 전국 최고 수준의 한방산업과 지역 명소를 연계한 1박2일 여행상품이다. 중장년층 여행 콘텐츠 제공 플랫폼 '노는 법'과 협업해 기획됐다.

이번 상품은 원광대 한방힐링센터로 시작으로 아가페 정원, 춘포마을을 거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미륵사지와 백제왕궁(왕궁리유적) 등을 방문한다.

'아름다(多)움 웰니스 익산 여행'은 2월 26일부터 지(G)마켓에서 판매되며, 3월 15일부터 매주 주말 총 4회 진행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재)익산문화관광재단(063-918-998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